

# 우리의 고전 서사기록을 통해 본 술



성 현 경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目 次 ■

1. 수양대군과 두 정승이 나는 술
2. 하느님과 신선들도 즐기는 술
3. 신과 인간이 함께 마시는 술
4. 성진이 용왕에게 얻어 마신 술
5. 마무리

## 1. 수양대군과 두 정승이 나는 술

- 입사식에서의 술 -

한 사람이 어느 사회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기존사회, 기성조직에 새로이 편입해 들어가 그 곳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배 신참(新參)이 선배 고참(古參)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는, 몇개의 관문(關門)을 통과해야만 한다. 시련을 견뎌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입사식(入社式), 성년식(成年式) (Initiation Ceremony) 또는 신참례(新參禮)라고 불리우는 통과의례(通過儀禮)의 한 절차이다.

다음은 우리의 야담집(野談集)인 《해동야언》(海東野言)이란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신숙주(申叔舟)가 영의정 자리에 있을 때 구치관(具致寬)이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이 때 세조대왕이 이 영의정과 우의정, 두 정승을 급히 내전(內殿)으로 불러 말하기를“오늘 경(卿)들에게 문제를 내어 잘 대답하면 괜찮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러니 경들은 스스로 헤아림이 어떠하오?” 두 정승이 절을 하면서 대답하였다. “근신(謹愼)하여 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얼마 뒤에 세조가 “신정승!”하고 불렀다. (문제를 내었다.) 그러자, 신숙주가 곧 “예.”하고 대답하였다. 세조가 신숙주를 향해 “내가 새 정승(新政丞)을 불렀는데 그대가 대답하였으니 실수했소. 이 큰 술 한 잔을 벌(주)로 받으시오!”

세조가 또 부르기를 “구정승!”하니, 신숙주가 즉시 “예.”하고 대답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내가 이번에는 성(姓)을 불렀거늘, 그대가 잘못 대답하였으니 다시 이 벌주(罰酒)를 받으시오!”

세조가 다시 부르기를 “신정승!”하니, 신(申)·구(具) 두 정승이 모두 대답하지 아니

하였다. 또 다시 “구정승!”하고 부르자, 이번에도 역시 양 정승 모두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세조는 “임금이 부르는데, 신하로서 대답하지를 앓았으니 예(禮)가 아니오. 이 벌주들을 받으시오.”

이와 같이 종일토록 두 정승이 벌주를 마셔 대취(大醉)하니, 세조가 크게 웃었다.

이것은 17세기 <홍길동전>의 작가로 유명한 허균(許筠)의 형 허봉(許篈: 문필가로 1551~1588 생존)이 남긴 <신구정승>(新舊政丞)이란 제목의 글 내용이다. 이 기록은 구(具) 정승의 입사식 또는 신참례의 모습을 생생히 제시·전달해 주고 있다.

이 일화(逸話: 에피소드)는 흥미진진한 말놀이(언어유희: Pun)로 짜여져 있다. 세조 임금이 신정승(申政丞)이 바로 구정승(舊政丞)이고, 구정승(具政丞)이 곧 신정승(新政丞)임을 기화로 재미난 말장난을 하면서, 구치관의 입각(入閣: 정승의 반열에 오름)을 축하하는 멋진 환영회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다. 군신(君臣)이, 기존 각료와 새 각료가, 술을 사이에 놓고 질펀히 어울리는 이 광경은 얼마나 정겨웁고 아름다운가.

이 의정부(議政府)에 새로 취임한 신참인 구치관이 고참인 신숙주나 임금과 어울려 그야말로 화합(和合)의 정치를 베풀거나 퍼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벽을 허물지 않으면 안된다. 하루빨리 친숙·친밀해지지 않고서는 정사(政事)를 올바르게 돌볼 수 없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화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술은 갈등과 반목, 벽과 긴장을 허물고, 마침내 융합(融合)·조화(調和)·화목(和睦)을 도모케 하는 윤희유(潤滑)의 기능, 촉진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학의 신입생들이 자신들의 환영회 석상에서 선배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 군(軍) 부대의 고참들이 신참들과 어울리는 술자리, 회사의 선배들

이 신입사원들에게 베푸는 주연(酒宴)은 새내기들의 처지에서 보면 모두 하나의 시련을 동반한 신참례이자 입사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술을 마시는 이 자리가 시련이나 고통만이 뒤따르는 자리라면, 그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 아니 그렇다면 술은 그 순기능(順機能)보다는 오히려 그 역기능(逆機能)이 더 커서 마침내는 역효과를 거두기 십상일 터이다. 이 자리에 얼마간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는 진실로 즐거워야만 한다. 술은 즐겁자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즐거움은 곧 여유에서 나온다. 자리를 함께 한 이들이 넉넉한 마음을 지닐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이 여유와 넉넉한 마음은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진 이들에게 더욱 요청되는 요소이다.

술자리가 흥취와 화기(和氣)로 가득차려면 해학(Humour)과 기지(Wit)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해학과 기지는 여유있는 마음, 따스한 가슴, 그리고 슬기로운 머리에서 나온다.

세조는 우리들에게 일면 나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부정적 심상으로 남아 있지만, 위의 일화를 통해 짐작하건대는 슬기로운 머리, 따스한 가슴, 여유있는 마음을 두루 지닌 성군(聖君)으로서 훌륭한 정치를 펼쳤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는 술의 효용성과 입사식적 기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임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신하들에게 내린 술은 비록 그 이름은 벌주였지만 기실은 상주(賞酒)였던 것이다.

술은 도취(陶醉)를 통해 일상(日常)의 단조로운 생활로 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현실의 제약적 상황이나 심리적 긴장의 상태를 이완·해소·망각케 하는 순기능(順機能)을 지니고 있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의 낮 또는 밤에 마시는 합환주(合歡酒)는 이러한 술의 제반 순기능을 감

안한 사랑의 묘약(妙藥)·신약(神藥)이라고 할 수 있다.

술은 또 한편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암호(暗號)로서의 메시지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 구미(歐美)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오늘 밤에는 세리주(스페인의 토속주로서 포도주의 일종)를 마시고 싶어요.”한다면, 이것은 “오늘밤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신호요, 메시지이다.

술은 이처럼 정을 나누는 인정(人情)의 매개물로서, 조식이 잘 돌아가게 하는 유허유로서, 화합을 도모케 하는 촉진제로서, 이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 하겠다.

## 2. 하느님과 신선들도 즐기는 술

- 분수대로 마시는, 절도와 절제 속의 술 -

옥황상제가 있는 백옥경(白玉京)에 열 두 누각이 있으니, 그 중 하나를 백옥루(白玉樓)라 한다.

그 계도가 굉장하고 화려할 뿐 아니라 사방 경광(景光)이 몹시 넓어 서편으로는 도솔궁과 이어지고 동편으로는 광한전과 통하였다. 아로새긴 기와와 그림 기둥은 푸른 하늘에 솟고, 옥으로 만든 창과 수놓은 문에는 상서로운 빛이 어리어, 하늘의 모든 누각 중에서 제일이었다.

옥황상제가 이 백옥루를 중수(重修)하고 모든 선관(仙官)을 초대하니, 이 낙성연(落成宴)은 자못 성대하였다. 모든 신선들이 날개옷과 무지개옷을 휘날리며 모여들자, 일제히 난(鸞)의 생황(笙簧)과 봉(鳳)의 통소소리가 서로 화답하니, 그 우렁찬 음향이 하늘에 사무쳤다.

푸른 빛 복숭아와 불빛 대추는 빛깔을 다투듯 놓였는데, 서로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취흥도 끝없었다. 옥황상제가 옥 유리잔(玻璃盃; 파리배)에 유하주(流霞酒; 신선이 마신다는

좋은 술. 신선주)를 가득 부어 특히 문창선군(文昌星君)에게 주며, “백옥루를 시(時)로 읊으라.”하고 명하였다.

문창성군은 취흥을 띠고 즉시 붓을 달려 삼장(三章) 시를 아뢰었다.

하느님도 과연 술을 마시실까? 마신다면 과연 어떤 술을 마실까? 우리의 고전 기록들을 통해 보건대 저 하느님도 술을 즐긴 것이 틀림없다. ‘유하주’, ‘천일주’(千日酒)등을 마신 게 분명하다.

위의 인용문은 우리의 19세기 남영로(南永魯)가 지은 <옥루몽>(玉樓夢)이라는 고전소설의 서장(序章)을 장식하고 있는 머리대목이다. 옥황상제와 신선들이 멋드러지게 어울려 풍류를 즐기고 있는 이 정경 속에는 여유와 관용, 흥과 신명이 넘쳐나고 있다. 아름다운 풍광, 은은한 음악, 맛난 술, 이와 같은 것들이 부드러운 인심(仙心?)과 어울어져서 한껏 흥취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우리의 17 내지 18세기 작품인 문장체 소설<심청전>(沈淸傳)의 주인공들인 심청과 심봉사는 각각 천상계의 술을 흠친 죄, 그 흠친 술을 받아 마신 죄로 이 지상계·인간계로 유배와 온갖 시련을 겪고 있다.

용왕이 미소를 띠고 이르기를 “너(심청-필자 주)는 전생(前生) 초간왕의 귀한 딸로서 요지(瑤池) 왕모연(西王母)가 베푸는 잔치-필자 주)의 술을 관장케 하였더니, 네 노군성(老君星; 선관의 이름, 심봉사의 前身)과 사정(私情)이 있어 그에게 술을 많이 먹여 잔치에 쓸 술을 부족하게 하매, 도솔천(兜率天; 太上老君의 다른 이름 - 필자 주)이 옥제(玉帝)께 청죄(請罪)하니, 옥제 진노하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존(天尊; 도솔천)의 죄가 아니고 술을 관리하던 시녀(奎星仙女)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沈淸-필자 주)의 죄이니 자세히 자초

지종을 조사하여 무거운 벌을 주라.” 하시며, “노군성을 인간세상에 내치어 사십 년을 무폐(蕪廢)히 지내다가 너와 더불어 부녀가 되어 네 성효(誠孝; 효성)를 나타내라.” 하시매, 노군성은 심현(심봉사)이 되어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유배됨) 한 지 사십 년만에 내가 그 딸이 되어, 천상의 술을 도적질해 먹은 죄로 식신(食神)을 점지(占指)하지 아니하여 십 삼년을 빌어 먹게 하고, 또 노군성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며, 규성(奎星)이 빌어 먹이는 것을 받아 먹도록 천상과보(天上果報)를 받게 정하여 계시니, 전생(前生)의 보응(報應)과 금생(今生)의 고락(苦樂)이 다 하늘이 정한 운수이나, 옥제 오히려 노여움을 풀지 아니 하시더니…….

위의 대목을 통해 보더라도 역시 천상계의 잔치에서는 술이 반드시 빼놓아짐을 알 수 있다. 남자 신선인 선관이나 여자 신선인 선녀들도 모두 술을 즐기고 있다. 초간왕(龍王 중의 하나)의 딸로서 ‘규성’이란 이름을 지닌 선녀이었던 심청이 이 천상잔치 - 요지의 왕모연 - 에서 쓰일 술을 관장하는 책임을 맡았다가, 노군성이란 선관을 사사로이 동정한 나머지 그에게 할당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 그것도 미리, 몰래- 이 잔치에 꼭 맞게 준비된 술을 축내고,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계(인간 세상)로 쫓겨와 갖은 고초를 다 겪고 있음을 본다.

천상계의 경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존재들이 술을 즐기되, 일정한 질서 또는 정해진 법도 안에서, 즉 절도(節度)와 절제(節制) 속에서 즐기고 있음을 본다. 항상 분수(分數)를 지키고 차리면서 마시고 있음을 본다.

동정심 많은 착하다 착한 심청은 노군성에게 사사로운 정을 베푼 대가(代價)로, 할당량 이상의 술을 몰래 공급해 준 죄로, 인간 세상에 눈먼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온갖 초년

고생을 다 겪고 있다.

이처럼 심청은 전세(前世)에 남의 음식을 빌어 심봉사(노군성)에게 먹인 죄로 현세(現世)에서(도) 역시 남의 음식을 빌어 심봉사에게 먹여야만 하는 존재로, 또 심봉사는 전세에 심청이 빌어 온 (훔쳐 온) 음식(술)을 받아 먹은 벌로 현세에서(도) 역시 심청이 빌어 온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야말로 철저한 인과응보(因果應報)라 아니 할 수 없다. 술이 과연 무엇이길래?

### 3. 신과 인간이 함께 마시는 술

- 음복(飲福)의 의미 -

우리의 조선조(朝鮮朝) 선조들은 이처럼 하느님도, 신선들도 술을 좋아한다고 여겼다. 그들의 상상력을 형상화(形象化)해 놓은 <우루몽>이나 <심청전> 속의 이 같은 장면들이 그 증거물들이다.

조선조를 살았던 선조들만이 아니다. 이보다 더 앞선 고대(古代)의 조상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새해의 새 아침 또는 새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새 봄에는 천지신명께 풍년을 기원하면서 술을 바치고, 농사가 끝나는 늦가을에는 천지신명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또 술을 바쳤다. 술을 바치는 일이 곧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부여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며칠을 두고 마시고 먹으며 춤추고 노래하니, 이것을 영고(迎鼓)라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목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늙은이 어린이 할것없이 모두가 노래를 불러 그 소리가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

마한에서는 매양 5월에 모종을 끝마치고 나

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노래 부르고 춤추며 술을 마셔서 밤낮을 쉬지 않았다. …(중략)… 10월에 농사일이 다 끝나고 나면 또한 같은 놀이를 하였다.

이 기록은 《위지 동이전》(魏志東夷傳)에 보이는 것이다. 부여(夫餘)의 〈영고〉, 마한의 〈제천〉(祭天) 의례 말고도 고구려의 〈동맹〉(東盟)과 예의 〈무천〉(舞天) 의례도 있었다.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술은 나중에 인간이 서로서로 나누어 마신다. 천신(天神)이 마시거나 응감(應感)한 술은 복(福)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제전 또는 제사에 쓰인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복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다.

토지신(土地神)과 조상신에게 바친 제주(祭酒)를 우리네 인간 후예들이 나누어 먹는 관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농사의 시필기(始畢期 ; 시작과 끝 시기)나 큰 명절날에는 반드시 축제가 베풀어졌고, 이 축제에는 술을 마시는 일과 노래 부르고 춤추는 놀이가 반드시 뒤따랐다.

우리 겨레는 이처럼 저 아득한 고대부터 다른 어느 겨레 못갈게 음주와 가무를 즐겼던 낙천적(樂天的) 민족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우리의 천부적인 낙천성·낙관성(樂觀性)을 뒷받침해 준다.

#### 4. 성진이 용왕에게 얻어 마신 술

- 금기의 술·파계의 술,

그러나 깨우침의 계기가 되는 술 -

이때 성진(性眞)이 물결을 열고 수정궁에 나아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 친히 궁문 밖에 나아가 맞아 상좌에 앉히고 진수성찬을 갖추어 잔치하여 대접하고 손수 잔을 잡아 권하거늘,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狂藥)이라, 불가(佛家)의 유(類)에 큰 경

계니 감히 파계를 못하나이다.”

용왕이 가로되 “부처의 오계(五戒)에 술을 경계하였는 줄 내 어찌 모르리오마는,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 세상의 광약과 달라 다만 사람의 기운을 화창(和暢)케 하고 마음이 미란(糜爛)치 아니하나니이다.”

성진이 왕의 괴로이 권함을 거절하지 못하여 연이어 석 잔을 마시고…….

이것은 김만중(金萬重)의 소설〈구운몽〉(九雲夢)에 나오는 대목으로, 성진의 파계 과정의 일단(一端)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성진은 자기가 의지하고 따르는 스승 육관대사(六觀大師)의 심부름으로 용왕에게 갔다가 그만 용왕의 꾀에 빠져 술 석잔을 얻어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해 급기야 번뇌·망상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마침내는 무서운 윤회의 길에 오르게 된다.

술 기운이 올라 낮이 달아오르거늘 …(중략)… 즉시 냇물에 나아가 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우회여 낮을 씻더니 홀연 기이한 향내 코를 거스려 향로 기운도 아니요 화초 향내도 아니로되 사람의 골 속에 사무쳐 정신이 진탕(震蕩)하여 가히 형언치 못할러라. …(중략)… 이때에 팔선녀 오히려 석교 위에서 말하는지라. … (중략)….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아(男兒) 세상에 태어나 어려서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나 요와 순(堯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出將入相하여) 비단옷을 입고 옥띠를 띠고 옥궤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恩澤)이 백성에게 미치어 공명(功名)을 후세에 드리움이 또한 대장부의 떳떳한 일이라. 우리 법문(法門)은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經文)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이라. 도덕(道德)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

술과 색(色)은 어쩌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주색(酒色)이란 낱말이 한데 붙어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들 둘은 한데 붙어 다닐 만큼 본디부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용왕의 유혹에 넘어간 성진은 용궁의 술을 얻어 마시고 난 뒤 마침내 여색(女色)에 빠져 불자(佛子)로서의 길을 회의, 유자(儒者)로서의 길을 혐오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양소유(楊少遊)로 환생(幻生)해 후자의 길을 걸어 보게 된다.

알콜(Alcohol)이란 단어는 본디 아라비아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명의 정수(精髓, Essence)란 뜻과 함께 반(反)고독이란 뜻 및 정신을 분리시킨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술은 인간의 정신을 괴로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도취와 황홀의 세계로 몰입하게 하는 최면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긍정적 변신(變身)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술은 이성(理性)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외잡스런 생각과 세계에 빠뜨리기도 하는 마법의 액체로서의 구실도 하는데, 여기에서 부정적 타락이 가능하게도 된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화창케 하는 긍정적 기능(용왕의 酒觀)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반면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 기능(부처의 酒觀)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제적(自制的)인 금욕(禁慾)과 수행(修行) 내지 고행(苦行)을 계율로 내세우는 불교와 일부의 기독교가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술을 부정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과연 성진은 색에 빠져 파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윤회를 거쳐서야 겨우 득도(得道)의 길, 해탈(解脫)의 길에 오르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가정(假定)의 세계로 들어가보기로 하자. 만약 성진이 용왕이 권하는 술을 뿌리치고 끝내 마시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진은 아마도 자신이 당시에 걷고 있었던 길, 곧 불자로서의 길에 대해 별로 회의감이 없이 득도하여 무사히 육관대사의 의발(衣鉢)을 전수받고, 마침내는 해탈·성불(成佛)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득도와 해탈의 삶이, 과연 윤회를 거친 복잡한 성진의 일생 - 양소유로서 환생하여 적강의 삶을 거친 다기(多岐)한 성진의 일생 - 보다도 더 뜻있고 값진 것이었을까? 글썽다. 아마도, 윤회의 고행길을 두루 거쳐 깨우친 도가 오히려 훨씬 더 보람있고 값나가는 것일 개연성이 높다.

이런진대 성진이 용궁에서 마신 술은 성진으로 하여금 일단 파계의 길·윤회의 길에 들도록 부정적 구실을 하였지만, 급기야는 각성의길·득도의 길에 들도록 긍정적 구실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술은 과연 용왕의 말과 같이 성진의 기운을 화창케 하여 그를 선도(善導)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 5. 마무리

우리는 이상에서 우리의 고전 서사기록 속에 나타난 술의 여러 얼굴들, 구실들을 살펴 보았다. 술은 잘만 마시면 참으로 좋은 것이다. 신도, 신선도 즐겨 찾는 음료수가 곧 이 술이 아니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바로 이 술이 아니던가. 그러나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되지만,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

그럼 어떻게 마시는 것이 곧 잘 마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를 빌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줄 안다.